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 3

현대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방주에서 흠어진 초대교회를 본다면 아마 그물로 둘러진 속에서의 여로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의 지진 재해로 무너진 기왓 장 밑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부모의 휴대폰으로부터 SOS 메시지를 유럽에 있는 아들이 듣고 인터넷상으로 도움을 호소한 것을 본 많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달려가 여러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드디어 구출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또한 연세 많으신 부모님께 드린 휴대폰의 착신내용을 통해 지진 재해 속에서 방황하는 부모의 신원이 밝혀져 가족과 재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부목사가 전부터 성도님이나 교회에 오시던 여러분들께 메일로 전송하고 있었던 1년 365일의 디보션(DEVOTION) 메일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줄이 되어 누가 어느 피난소에 있는 지 혹은 그 분은 무사한 것인지 등의 안부정보가 한사람 한사람과 연락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진 재해후에 게재한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성도님들의 지진재해 상황이나 안부정보를 게재함으로써 각지에 흠어진 성도님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고 기재된 정보나 기도제목을 공유하여 오묘한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상의 정보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상상도 못하던 곳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빠른 확대는 당초부터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해일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속도로 지역이나 바다를 넘어 언어의 장애까지도 극복하며 순식간에 전파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의 검색수가 피크 때는 하루 20 만건을 넘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덮쳐온 지진 재해 속을 혼자 발버둥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지진 재해와 동시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우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때로는 감싸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경이로움은 갑자기 덮친 해일의 위협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른바 제 2의 해일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 예배에는 2 개월 만에 출석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어느 날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분이 초면인데도 '다리는 좀 어떠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성도님에 대해 기재된 홈페이지의 안부정보를 통해 최근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고는 기도하고 계셨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뜻밖에도 온세계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제 예배 때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미국에서 크리스천이 되셨고 현재도 미국인교회에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 교회를 방문해 일본의 크리스천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지진 재해를 통해 많은 미국인이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일본어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보시고 계신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일본어를 모를 텐데 보시고 기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그래서 그 분들께 '어떻게 보시게 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크리스천이 1 퍼센트인 일본에서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들려 오지 않는 것은 아마 피해지역에 교회가 적고 지진피해를 입은 크리스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에도 크리스천이 있고 웹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도 지진 피해를 입고 피난 여행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난 여행 중 괴로움에 발버둥치면서도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놀란 것은 오히려 우리이었습니다.

원래 교회 홈페이지 블로그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쓴 것이 아니고 지진과 해일과 원전사고 속에서 저희 부부가 후쿠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려고 한 전 전날인 3 월 13 일 심야에 어떻게든 많은 성도님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침례교회동맹 의장앞으로 보낸 메일로 시작된 것 이었습니다. 이것이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순식간에 여러 곳에 퍼졌고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관계 없이 볼 수있게 전개된 것이었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 놀라운 일이 계속되어 여간해서는 놀라지 않는데도 상상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놀라운 일에는 얼떨떨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단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바꾸어 이번에 우리집의 애완견도 같이 피난하게 됐습니다. 큰 고난을 함께 헤쳐나온 이른바 지진피해를 극복한 장한 개입니다. '잘 견디었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 14 년 째 되는 노년의 백내장 기미가 있는 2.7 킬로의 소형개인 파피온입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우리 집 아이들의 성장에서 진학까지 그리고 아이들의 결혼과 손자의 습격까지^^ 받아주며 같이 지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실내에서 다른 많은 개들처럼 주인과의 조용한 여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지진 재해를 당한 것입니다. 아마 무슨 영문인 지도 모르고 출장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인과 함께하는 논스톱의 피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이 2 개월간의 주행거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시즈오카에서 데려온 이 애완견이 동북 땅에서 자라서 그런지 인내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면 언제나 변함없이 '멍멍'하고 대답합니다.

어찌되었든 무엇이 일어난 지도 모른 채 그 날 그 날을 힘껏 살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것도 몰라도 아니 알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사실이니깐요. 우리 집 개도 나름대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 왔을 것입니다. 어쨌면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인생 도정에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지 알든 모르든 견디어 내며 살아 온 점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과연 우리들을 돌아보실 때 ' 곤란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위로해 주시겠지요.

5 월 16 일(월) 동북 신칸센(東北新幹線)내에서